총선 D-9 이색 선거운동

만원으로 시장 보고
목욕탕서 알몸 유세
운동원 위해 놀이방
걸으며 뚜벅이 유세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시끄러운 유세차량 대신 발품을 파는 '뚜벅이 유세'에서부터 알몸 선거운동까지 이색 유세전을 선보이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톡톡 튀니 관심 끄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 유세전=이번 총선은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각 정당 후보가 결정됐다. 그만큼 홍보기간도 짧아졌다. 후보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이색홍보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통합민주당 지병문(광주 남구) 후보는 30일 관내 목욕탕에서 '알몸' 유세전을 펼쳤다. 유권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겠다는 의미다.

무소속 김경진(광주 북구갑) 후보는 유권자를 위해 자신의 유세일정과 장소, 시간 등이 담긴 일정표를 배포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말바우 시장과 모 대형유통 할인매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체감하기 위해 '만원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지원병'을 감동시켜라=선거자원봉사자들은 유세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들이다.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이들의 역할은 크다. 든든한 지원병인 이들은 후보의 절대적 지지자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정연주(광주 광산을) 후보는 선거사무실에 13.2m² 넓이의 공부방을 겸한 놀이방을 만들었다. 자원봉사자 상당수가 30~40대 주부인 점을 감안, 봉사자들이 유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세 차량 홍보전 '이제 그만'=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방송은 유권자의 반감을 사게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시끄러운 방송 대신 발품을 팔아 유권자를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욱(광주 동구) 후보는 유세 차량 대신 오직 걸어다니며 인사하는 '뚜벅이 유세'에 올인 했다. 한나라당 이가연(광주 북구갑) 후보도 거리 유세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6천명의 당원이 직접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후보를 알리고 있다.

◇저비용 선거…'알찬' 홍보=한나라당 정용화(광주 서구갑)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강조하며 저비용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고가의 LED전광판을 단 선거유세차량 대신 일반 차량을 택했으며, 자원봉사자 60명도 무보수로 도와 줄 수 있는 이들만 뽑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r

한총련 의장 후보없어 못뽑아

출범 16년만에 선거 첫 무산

올해로 출범 16년째를 맞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신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초유의 의장 공석 사태를 맞았다.

학생운동의 퇴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급진적 학생운동을 주도해 온 한총련이 후보가 없어 의장을 뽑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학가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0일 한총련에 따르면 2008년 제16기 한총련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기간인 지난 15일까지 한총련 의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대의원이 아무도 없어 올해 한총련 의장 선거가 무산됐다. 1993년 한총련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총련 관계자는 "올해 신임의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던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가족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후보등록기간에 아무도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며 "한총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장선거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장 공석 사태가 빚어진 것은 한총련이 일반 대학생들과의 괴리감을 좁히지 못해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의장이 되는 순간 사법당국에 쫓기는 것은 물론 실형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기 한총련 의장이던 류선민(전남대 총학생회장)씨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한총련 의장들은 수배자 신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한총련의 전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A씨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만큼이나 대학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단체는 일반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와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장 공석 사태로 인해 한총련은 지난 28일 한양대 캠퍼스에서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 비상운영 체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김현웅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16기 한총련 투쟁본부장'으로 추대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직전 의장인 류선민 전 의장 등 2000년 이후에만 4명의 의장을 배출했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삼성에 기름 피해 보상 촉구 무안과 신안, 영광 등 타르 피해지역 어민 500여명은 지난 29일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삼성중공업측에 원유 피해 무한배상 및 선(先)보상을 촉구했다. /무안=위직량기자 jrwi@kwangju.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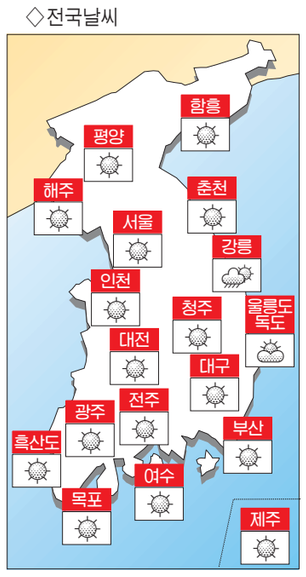
눈부신 월요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3월 31일 (음 2월 24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4~13℃
목 포	구름 조금	4~11℃
여 수	맑음	6~12℃
완 도	구름 조금	4~12℃
구 례	구름 조금	1~13℃
해 남	구름 조금	2~12℃
장 흥	구름 조금	1~13℃
고 흥	구름 조금	4~13℃
순 천	구름 조금	1~13℃
영 광	구름 조금	1~10℃
진 도	구름 조금	3~13℃
전 주	구름 조금	2~13℃
남 원	구름 조금	0~13℃
흑산도	구름 조금	5~7℃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목 포 밀물 08:49 20:51 썰물 00:52 15:47
여 수 밀물 05:08 17:06 썰물 11:40 22:58

▲해뜸 06:21 ▲해짐 18:53 ▲달뜸 02:43 ▲달짐 12: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날 씨						
최저/최고	3/16	4/18	5/19	4/21	5/22	7/20

광주 송원초교생 U대회 유치 기원

2박 3일 도보 순례 나선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도보 순례에 나선다.

광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 90명으로 구성된 도보순례단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 광주시청 앞 광장을 출발해 광주천을 따라 시내를 가로지른 뒤 무등산을 돌아 5·18 국립묘지,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까지 66km을 걷는 2박3일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이번 도보순례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인내를 기르고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가슴에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광주에서'등의 구호를 적은 표식을 부착하고 배낭에는 홍보 깃발을 달고 걷기에 나선다.

어린이와 인솔교사들은 도보순례 출발과 도착 전후에 하계U대회 유치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서명 작업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학교측은 이번 체험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1km를 걸을 때마다 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시켜 주기로 했다. 적립금은 도보순례가 끝나는 날 전액 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후원금으로 광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금은 지역 중견 건축설계회사인 (주)시엘(CL)건축디자인(대표 김일권)이 도보순례 취지에 동감, 지원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송유관 기름도둑 최하 징역 3년

고유가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을 높이고 벌금조항을 신설한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름을 훔치기 위해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지만 개정법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수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름도둑을 신고하는 데 대한 포상금도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늘였다. 2005년 만 해도 연 1건에 불과했던 송유관 기름절취사고는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6년 1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1건으로 늘어났다. . /연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 광주·전남서도 성향 조사

경찰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대학 교수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 교수모임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광주·전남 교수모임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대 A교수는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있고 난 하루 이틀 뒤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이전 10년 동안의 정권이었다면 비슷한 모임이 결성됐더라도 걸려오지 않았을 전화라는 생각에 그리 유쾌한 문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교수에게 광주·전남 교수들의 모임을 별도로 가질 것인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언제부터 결성 움직임이 있었는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전국 모임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남대 B교수는 "북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며 "한 번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수모임은 3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80년대식 학원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과 국정원은 교수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지시한 주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에서 이 모임에 참가하는 교수들은 전남대 119명, 조선대 14명, 광주대 44명, 호남대 10명 등 2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월 중순 광주·전남 교수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추가로 지역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 오토바이 운전 10명 적발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불법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불법 오토바이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지적돼 온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 11㎞ 전 구간에 단속반원 40명을 배치, 2시간 동안 단속 활동을 벌여 오토바이 운전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된 운전자들을 모두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첫 단속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매주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